디지털 변화 맞설 AI 주권 확립해야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⑫ AI가 국경에 갇힌 날

美, 앤트로픽 최첨단 AI 모델 수출 통제
국가 안보상 이유, 서비스 중단 첫 사례
AI, '능력의 확장' 아닌 '빌려 쓰는 지능'
맹목 수용 · 거부 넘어 '디지털 중도' 필요
기술 종속 민낯 직시하고 위기 대비해야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신 AI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수출 통제를 발동해, 외국인 직원까지 포함한 모든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앤트로픽은 사용자의 국적을 일일이 가려낼 수 없어 두 모델을 전 세계에서 중단시켰다. 시장에 나온 AI가 정부의 명령으로 멈춰 선 첫 사건이었다. AI Grok 생성 이미지

사흘 만에 사라진 지능

발단은 평범한 기술 점검 한 건이었다. 지난 6월 11일 목요일 저녁, 아마존의 연구진은 며칠 전 앤트로픽(Anthropic)이 내놓은 최첨단 AI 모델 '페이블 5(Fable 5)'를 시험하다 그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길을 찾아냈다. 앤트로픽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최대 투자자이자 클라우드 동반자로서, 그 빈틈을 직접 들여다보던 참이었다. 이른바 '탈옥(Jailbreak)'이다. 원래대로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했을 사이버 공격용 정보를, 모델은 순순히 토해냈다.

이튿날 아침, 아마존 최고경영자 앤디 재시(Andy Jassy)는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경고의 골자는 분명했다. 자사가 검증을 맡은 모델이 뚫린 이상, 이대로 두면 국가 안보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백악관은 지체하지 않았다. 정부는 곧바로 앤트로픽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에게 위험을 통보했다.

이후 이 대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AI 정책 고문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가 내놓은 설명은 이렇다. 정부가 결함을 고치거나 모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아모데이는 "심각한 위협이 아니다"라며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앤트로픽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문제의 우회는 이미 알려진 사소한 취약점 몇 개를 드러냈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색스의 시각은 달랐다. 늘 '안전이 최우선'이라 말해온 회사가, 정작 이번에는 안전보다 소비자용 AI 모델의 영업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금요일 오후 1시 15분(미 동부시간), 백악관의 최후통첩이 떨어졌다. 90분. 그 안에 모델을 내리라는 것이었다. 오후 5시 21분, 상무부의 정식 수출통제 서한이 도착했다. 명령의 골자는 단순한 철회가 아니었다. 미국 안팎을 막론하고 모든 외국 국적자 즉, 해외 이용자는 물론이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심지어 앤트로픽 소속 외국인 직원까지 포함해서 접근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앤트로픽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국적을 구분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그날 밤, 앤트로픽은 모든 사용자에 대해 '페이블 5'와 '미토스 5' 서비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장에 풀린 AI 모델이 수출 통제 명령으로 사실상 멈춰 선 것은 인류가 처음 마주한 장면이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하나의 서비스가 멈췄다는 데 있지 않다. 그동안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는 반도체, 서버, 데이터센터 같은 물리적 인프라가 있었다. 누가 더 강력한 칩을 확보하는가, 누가 더 거대한 연산 시설을 짓는가가 경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통제의 대상이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칩과 장비를 넘어, 학습된 지능 그 자체가 전략 무기가 됐다. 인간이 만든 AI 모델이 어느 순간 총과 미사일처럼 규제의 손길이 미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것은 먼 나라의 기술 뉴스가 아니다. 어제까지 정상적으로 쓰던 지능이, 내 의지나 잘못과는 무관하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 냉정한 현실은 우리가 AI시대에 무심코 잊고 있던 한 가지 진실을 일깨운다. 우리가 '나의 것'이라 믿어온 그 AI 지능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다.

무기가 된 지능, 연기(緣起)의 사슬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 붓다가 설한 연기의 이치는 이 디지털 패권의 사슬 속에서도 한 치 어긋남이 없다. 더 강력한 지능을 향한 욕망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 그 기술을 홀로 거머쥐려는 기업의 야심, 그것을 군사적·경제적 우위로 바꾸려는 국가의 계산, 다시 그 힘을 빼앗거나 베끼려는 또 다른 손길이 차례로 뒤를 잇는다. 얽힌 욕망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의심과 분노로 자라며, 그 의심이 끝내 빗장을 지른다. 그러나 빗장은 두려움을 잠재우기는커녕 새로운 두려움을 키울 뿐이다.

연기의 가르침이 서늘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슬에는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단 하나의 악인이 없다. 모델을 만든 회사도, 거기에 수십억 달러를 건 투자자도, 빗장을 채운 정부도 저마다 사슬의 한 마디였을 뿐이며, 한국 역시 그 연쇄의 끝자락에서 진통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그러니 통제는 사슬을 끊는 듯 보이지만, 실은 거기에 새 고리를 하나 더 거는 일에 가깝다.

AI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인터넷 너머 서버에 맡겨두고 어디서든 불러 쓰는 기술을 흔히 '클라우드(cloud)'라고 한다. 이 이름에는 묘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다. 구름처럼 가볍고 자유로워, 어디서든 손 닿는 곳에 있을 것만 같은 묘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클라우드'는 구름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서버이고, 누군가의 법률과 안보 전략 아래 놓인 영토다. 손끝으로 불러내는 지능은 국경 없는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전력망과 기업의 소유권, 정부의 통제 권한 위에서 비로소 작동한다. 접속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내 능력의 확장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접속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본디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던 능력이었음을 깨닫는다. 이것이 '빌려 쓰는 지능'의 무상(無常)함이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리라 믿고 움켜쥘 때 괴로움은 싹튼다. 빌린 힘을 제 것인 양 거머쥔 그 자리에, 언젠가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자라기 때문이다.

AI 주권의 중도(中道)

AI가 국경에 갇힌 날,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 살아왔는지를 묻게 된다. 외국의 AI 기술에 기대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만 만들자는 폐쇄적 자립론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어차피 글로벌 생태계는 상호 의존적이니 지금처럼 빌려 쓰면 된다고 안심해야 하는가. 둘 다 충분하지 않다. 붓다가 깨달음에 이른 길은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도(中道)였다.

디지털 시대의 중도란 맹목적 기술 종속과 폐쇄적 기술 거부라는 양극단을 모두 떠나는 지혜다. 그것은 외부의 지능을 지혜롭게 활용하되, 그것에 존재의 뿌리를 통째로 내맡기지 않는 균형이다.

불교 전통은 오래전부터 무상한 것에 삶의 근거 전체를 맡기는 태도를 경계해 왔다. 무상은 단지 "모든 것이 변화한다"라는 허무의 언어가 아니라, 조건 지어진 것은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달라진다는 통찰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은 아무것에도 기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삶이다.

AI 주권이란 단순히 "우리 모델을 갖자"라는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 의존이 끊겼을 때 사회가 받을 충격에 대비하며, 공공성과 안전을 기준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깨어 있는 능력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지금 빌려 쓰는 지능 위에 삶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지능을 다루는 주인으로 서 있는가. 한 통의 전화가 사흘 만에 세계의 지능을 멈춰 세웠듯, 우리가 영원하리라 믿었던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조건이 바뀌는 순간 신기루처럼 흩어진다. 붓다가 무상을 설한 것은 손 놓고 사라짐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조건이 변할 것을 미리 알고 그에 휘둘리지 않을 토대를 닦으라는 가르침이었다.

가장 강력한 지능이 가장 손쉽게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더 높은 성벽이 아니라 회복의 구조다. 사라진 것은 하나의 AI 모델이었지만, 그것이 드러낸 것은 기술 종속이라는 우리 시대의 민낯이었다.

무상은 그 민낯을 가리라는 말이 아니다. 똑바로 보고, 지금 준비하라는 말이다. 그 준비를 미룬다면, 무상은 깨달음이 아니라 거듭되는 충격으로만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온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